

12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384.24 (-241.69)	849.19 (-43.08)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3.921 (-0.062)	1331.70 (-11.10)		

K-뷰티 ‘7억 인구’ 동남아 정조준 고온·자외선 차단 스킨케어 강화

CJ올리브영, 세포라와 파트너십
아시아 4개국 매장·온라인 진출
현지 생산기지 구축 가치사슬 강화

K뷰티가 차세대 전략지로 동남아 지역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내 대표 뷰티 유통사 CJ올리브영이 해외 유명 뷰티 편집숍 세포라와 협력해 아시아 주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망인디 브랜드들 역시 K뷰티뿐 아니라 이색 K콘텐츠를 선보이며 글로벌 소비층을 흡수한다. 여기에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들은 현지에서 생산 기지를 구축해 K뷰티 가치사슬을 강화한다.

12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동남아 시장 대도약 중심에는 CJ올리브영이 있다. CJ올리브영은 세포라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아시아 주요 4개 국가의 총 48개 세포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올리브영 K뷰티 에디션’을 공개한다.

세포라 말레이시아 매장 18곳, 태국 13곳, 싱가포르 9곳, 홍콩 8곳 등을 K뷰티 확산 거점으로 활용한다. 세포라라는 검증된 거대 유통망을 지렛대 삼아 국내 브랜드를 신속하게 퍼뜨리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로 앞서 올해 8월 미국 세포라를 통해 선보여진 브랜드들의 경우, 하루 평균 매출이 한 달 만에 2배로 뛰어오르는 폭발적인 성과를 거뒀다.



10·15대책 1년… 한강벨트 거래 반토막

12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광고가 게시되어 있다. 서울 전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집값별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뒤 한강벨트 거래량은 반토막 난 반면 외곽 지역은 거래에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9952건으로 전년 동기(6만7173건) 대비 10.7% 감소했다.

12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광고가 게시되어 있다. 서울 전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집값별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뒤 한강벨트 거래량은 반토막 난 반면 외곽 지역은 거래에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9952건으로 전년 동기(6만7173건) 대비 10.7% 감소했다.

/뉴시스

이번에는 동남아의 고온다습한 기후, 강한 자외선 등을 반영한 스킨케어를 집중 배치하는 등 올리브영만의 큐레이션 역량으로 K뷰티 상생 체제를 본격화한다. 특히 동남아는 전체 인구 7억 명 중 34%가 유행에 민감한 15~34세 청년층으로 구성돼 K뷰티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올해 국내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 집계한 외국인 구매 순위에서 싱가포르와 태국은 상위 5위권

에 들었다. 올리브영이 글로벌 주요 판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K뷰티 대표 주자들은 사업 다각화로 K뷰티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에이피알은 동남아 법안에서도 판매고를 올렸다. <3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수출 견고하지만, 통상 등 불확실성 높아”

이형일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재정 1조 마중물, 국내외 자본 결집
3조 규모 해외건설 신 전략펀드 조성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수출 부문 호조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요국과의 통상 문제가 얽혀 있다며 경제 관련 위험요인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경제원팀’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변화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그는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상수지가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외 위험요인 관련해 “첫 번째 리스크는 무역 불확화, 대미통상현안, EU(유럽연합)의 산업보호조치 강화 등 통상 질서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라며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의 다변화를 추진해 경제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현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 중으로,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따라 문화·금융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및 미중 갈등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도 인

급했다. 이에 대응해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비축 확대 ▲해외생산 능력 구축 ▲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고위급 정상 외교를 통해 주요국과 경제 및 공급망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정상외교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투자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발맞추기로 했다. 기존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정부 간 협력 등 국가별·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정 1조 원을 마중물로 국내외 자본을 결집하는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이달초 수출액 261억 달러 ‘역대 최대’

관세청, 1~10일 전년비 102% 급증
반도체 수출 171% 증가 122억 달러

10월 1~10일 수출이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에 비해 100% 넘게 늘었다. 10월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상순 수출은 26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2.0%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47억5000만 달러로 28.5% 증가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 3.5일에서 올해 5.5일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70.9%)를 비롯해 석유제품(45.6%), 승용차(82.7%), 무선통신기기(62.6%) 등 주요 품목 수출이 크게 늘었다.

대상품목별 중국시장 수출이 167.3% 증가했다. 또 미국(159.9%)과 베트남(89.7%), 유럽연합(127.3%) 등도 호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입은 2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5%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

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월 기준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품목별 수입은 원유가 전년 동기 대비 56.2%, 반도체 66.7%, 가스 125.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입은 10.9%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 84.4%, 미국 57.6%, 유럽연합 87.7%, 일본 80.1%, 대만 82.5% 등 주요국에서 모두 늘었다.

한편 9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5% 증가한 1209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존 월간 최고치였던 지난 6월 1020억 달러를 크게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월 기준 16개월 연속 상승세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2.8% 증가한 603억 달러로, 월간 기준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종전 최고치는 8월의 467억 달러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주병기, 대통령비서실 감찰 의혹에 “감찰 없었다”
/사진 뉴시스
▲북,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軍 초초음속 공개 4일 만에 도발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불가피…민주당 결단만 남아”
▲하태경 “김정은도 안하는 총살 생중계…李, 트럼프에게 항의해야”

▲중수청 출범 열흘간 경찰 통보 459건…이첩 요구는 ‘0’
▲역사기관 통폐합에 기관장들 “전문성 훼손 우려…의견 수렴 없어”